

기후위기, 남은 시간은?

권원태

APEC기후센터

wontk@apcc21.org

2019년 세계의 기후는 이상기후나 극한현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. 최근 5년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℃ 상승했으며(WMO), 2019년 7월은 관측사상 가장 기온이 높았으며, 서유럽의 폭염,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을 태풍 내습, 각지에서 발생하는 산불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실정이다. 이제는 과거의 이상기후가 평년이 되는 “뉴노멀(New Normal)” 기후에 적응해야 한다.

최근 정부간기후변화협약체(IPCC)는 ‘지구온난화 1.5도 특별보고서(SR1.5)’, ‘토지와 기후변화 특별보고서(SRCCL)’, ‘해양과 빙권 특별보고서(SROCC)’ 및 ‘2019년 국가인벤토리 방법론 보고서’ 등 총4권의 특별보고서 및 방법론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. 특히 SR1.5 보고서를 통해서 1.5℃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45% 감축하고 2050년까지 배출을 ‘net-zero’로 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.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전환적 대응을 해야 하며 이산화탄소제거(CDR) 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확대,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즉각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.

2℃ 온난화와 비교하여 1.5℃로 온난화를 제한한다면 극한현상 감소, 생물다양성 및 멸종, 해수면 상승, 식량 생산, 수자원, 기반시설 등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2050년에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최대 수억 명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. 그러나 세계 각국의 대응은 온난화를 완화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2018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대비 1.7%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. 만약 지금 수준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면 남아 있는 시간은 10년에 지나지 않는다.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눈앞에 다가와 있다.